

한구절
목 상

2023년 3,4월

한 구절 묵상은 무엇인가요?

존 오트버그는 그의 저서인 「평범 이상의 삶(국제제자훈련원)」을 통해 '하루 종일 하나의 생각, 하나의 구절만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 구절 묵상은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경건생활입니다.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 (3년 과정)'을 따라 제작된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을 활용하여 말씀 묵상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매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한 구절 묵상을 함께!

- 1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가정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려보세요.
- 2 자녀들도 어린이묵상(어묵)과 주일설교(청소년부)를 통해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함께 묵상합니다.
- 3 교구 다락방 모임과 대학청년부 소그룹에서 한 구절 묵상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 4 새벽기도회 말씀을 통해 한 구절 묵상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보세요.
- 5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구절 묵상 및 더 깊은 말씀 묵상을 위한 다양한 묵상 자료들을 활용해보세요.

새롭게 개편된 한 구절 묵상을 소개합니다!

	1년	2년	3년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사사기	여호수아 /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욥기 / 시편1	잠언 / 시편2	전도서 아가 / 시편3
선지서	이사야 호세아 요엘 / 아모스 오바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요나 / 미가 / 나훔 하박국 /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학개 / 스가랴 말라기
복음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바울서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 빌레몬서
일반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 1 3년간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 2 커리큘럼은 매일 성경 1장 분량씩 진행됩니다. (월~주일, 주 7일 묵상)
*묵상이 어려운 본문(인구조사, 족보, 성막제작, 열방심판 등)은 묶어서 함께 묵상합니다.
- 3 3년 커리큘럼에 맞춰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이 개편되었습니다.
- 4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은 격월로 마지막 주 주일에 배부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핸드북 PDF를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이렇게 묵상하세요.

1 기도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의 은혜를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2 본문읽기

묵상구절을
두세 번 읽으십시오.

3 묵상하기

본문의 의미를 곱씹어 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2/27
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장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개역개정]

²³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새번역]

²³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한 구절 묵상

오래전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임마누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함부로 만날 수 없었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친히 찾아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1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2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나요? 언제 그 기쁨을 경험하나요?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

4 묵상노트

질문에 따라 묵상한 후
적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5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보십시오.
제공되는 기도문을 따라
기도해도 좋습니다.

6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오늘의 본문(1장 분량)을
읽고 묵상해보세요.

5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장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개역개정]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새번역]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한 구절 묵상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임마누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함부로 만날 수 없었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친히 찾아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나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나요? 언제 그 기쁨을 경험하나요?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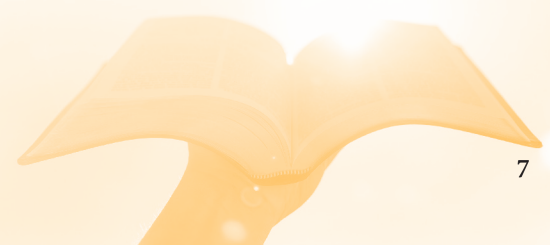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장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2장 11절

[개역개정]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새번역]

11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한 구절 묵상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별 아래 태어나신 이가 바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걸맞은 태도를 취합니다. 아기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러나 온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작 유대인들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내 삶에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왕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3장 8-9절

[개역개정]

-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새번역]

- 8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한 구절 묵상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아왔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언제나 옳다는 잘못된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는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언제나 내가 옳다는 착각에 빠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 ② 내가 끊어내야 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서도 회개의 열매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서는 시험 받으신 후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4장 19절

[개역개정]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새번역]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제자 됨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부르심의 목표는 사람을 낚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② 나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또 내가 누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집중된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누리는데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며,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개역개정]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번역]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구절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빛이 세상을 밝히듯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친절과 환대, 사랑으로 넉넉한 배려와 같은 일상의 작은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결단해 보세요.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오늘 나는 어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분내기를 더디 하며, 예수님 닮은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서는 구제와 기도, 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6장 1절

[개역개정]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새번역]

1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한 구절 묵상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주제를 꿰뚫는 핵심 구절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을 하면서도 그 중심이 자신의 어머함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면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경건의 행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할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의 행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하는 나의 경건의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은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해 보세요.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은밀하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며 들은 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들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7장 24-25절

[개역개정]

-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새번역]

- 24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무리 하시면서, ‘듣고 행함’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제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나는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순종하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기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내 영혼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8장

나병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8장 2-3절

[개역개정]

- 2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대 하거늘
-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새번역]

- 2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한 구절 묵상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 한 나병환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으니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해결하실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 ②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나의 삶속에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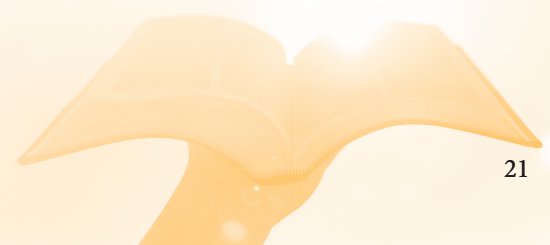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난가운데서 건지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과 함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9장 6-8절

[개역개정]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새번역]

6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로 중풍병환자의 죄를 사해주셨습니다. 죄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만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아파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야 비소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가 있든,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함 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해야 할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해 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와 회복의 감격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0장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박해나 핍박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개역개정]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새번역]

28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한구절 묵상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혹여나 내가 손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새 두 마리의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과 입술로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1장

복음을 완악하게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책망 받지만,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1장 28-29절

[개역개정]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새번역]

28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쉬을 얻을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이스라엘에는 두 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내가 메고 있는 멍에는 나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까?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주와 함께 메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3/10
금

본질이 형식을 이긴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2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대해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주인이 누구며, 안식일에 정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2장 6절

[개역개정]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새번역]

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한구절 묵상

안식일에 배고픔을 느낀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행동은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논쟁을 걸어온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이 그와 함께했던 자들과 진설병을 먹었던 일, 안식일임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주일이 아닌,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주일되길 원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예수님이 주일의 참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일의 참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 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은 일곱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전파와 수용성(씨 뿌리는 비유), 점진성(겨자씨, 겨자씨 비유), 천국 시민의 기쁨(감추인 보화, 진주 비유)등 입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3장 23절

[개역개정]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새번역]

23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결실을 낸다.



한구절 묵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이 있는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밭’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빼앗기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쁘게 말씀을 받지만 환난과 핍박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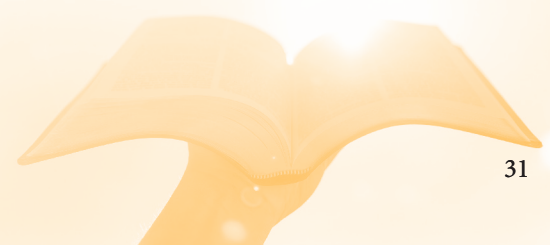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열매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두 가지 이적(오천 명을 먹이심, 물 위로 걸으심)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4장 27절

[개역개정]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새번역]

27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구절 묵상

예수님은 오천 명을 먹이시고,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만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배로 떠난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 밤 사경(새벽 3~6시)에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섭고 놀라며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불어 풍량이 일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 물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지만, 현실의 두려움으로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현실의 두려움으로 믿음이 약해져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었던 두려움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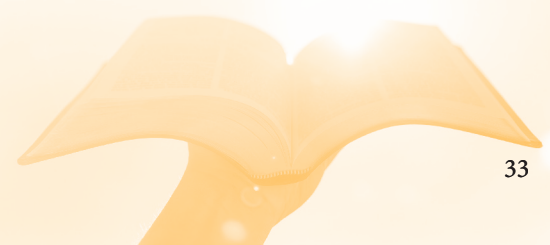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5장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항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5장 8-9절

[개역개정]

-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새번역]

-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 9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한구절 묵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씀의 본의를 상실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전통만 따르며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신념, 교회의 전통이 우선되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종교지도자들은 장로의 전통만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내 안에 굳어진 신념과 전통은 없는지 생각해봅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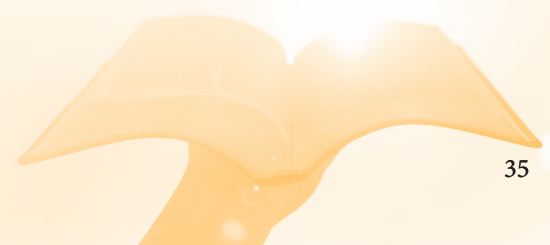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어져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념과 전통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상처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입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개역개정]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새번역]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한구절 묵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곱씹어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함께하던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만의 고백이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수많은 대중의 고백보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소중한 것은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분명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확신있게 고백하고, 누구에게든 자랑하며 소개할 수 있는 신앙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7장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7장 20절

[개역개정]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새번역]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한구절 묵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꾸중은 제자들만이 아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작은 믿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의 많고 작음이 아니라 유무(有無)를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면 '커다란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지금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의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면서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산처럼 크고 꿈쩍도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죄 범한 형제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8장 35절

[개역개정]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새번역]

35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한구절 묵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죄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관용을 베푸는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래 용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한 죄 용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자들은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은혜를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 없이 베푸는 우리가 됩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오늘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은 결혼의 신성함을 설명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은혜로운 상급과 대조되는 부자 청년의 비극을 설명하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19장 14절

[개역개정]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새번역]

14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인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인들의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어린이는 천진난만한 신뢰, 연약함, 부모의 도움과 인도의 방편 없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무능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어린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오늘 나의 삶에 어린이와 같이 주님께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어린이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은 보상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특출함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음을 말씀 하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개역개정]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새번역]

28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려 주려고 왔다.



한 구절 묵상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자리가 사람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두 아들을 보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의 삶에 높임을 받으려는 모습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고, 어떻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예수님은 제자 된 우리에게 섬기는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정, 직장에서 어떻게 나의 가족과 이웃을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의 삶에 섬김을 받으려는 영적 교만을 과감히 버리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섬김의 옷이 날마다 입혀지게 하사, 예수님의 참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위가 있으심을 성전입성, 성전정화, 무화과나무 저주, 종교지도자에게 선포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21장 13절

[개역개정]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새번역]

13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한 구절 묵상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매하는 사람들로 인해 성전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둘러앉음으로 성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상과 의자는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마음은 죄를 지어내는 공장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20
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

유대인들은 울무에 걸리게 할 의도로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일일이 변론하시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22장 23절

[개역개정]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새번역]

14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한 구절 묵상

유월절을 앞둔 성전 앞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구원을 자신하는 유대인들 앞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 베푼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의 부름에는 자기 일들로 바빠 탄청 피우고 있다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리에서 은혜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요, 은혜 일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지 점검해 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은 부르신 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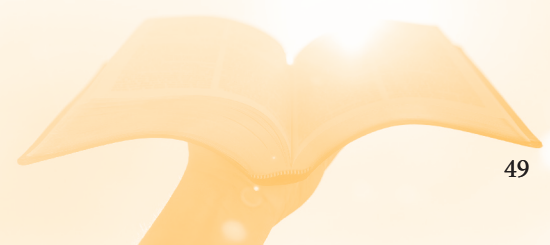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자격 없는 저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21
화

회칠한 무덤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23장 27절

[개역개정]

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새번역]

27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한 구절 묵상

‘회칠하다’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 ‘하얗게 칠하다’라는 뜻이며, 비유적으로 ‘결점을 감추고 겉을 꾸미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당시에 무덤을 하얗게 칠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하얗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그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겉으로는 남다른 껌찬은 척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혹시 내 영혼이 죽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오늘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라면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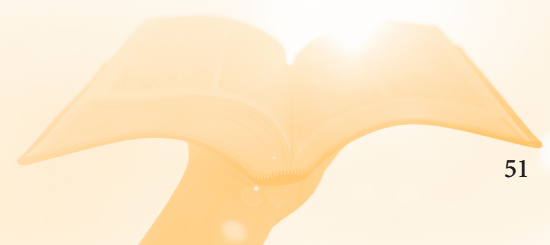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영혼은 죽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모습만 열심히 치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24장 13-14절

[개역개정]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새번역]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14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과 그때의 징조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시험도 많아지고 고난도 커집니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그 복음에 대한 저항도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을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받은 우리는, 깨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끝이 있다는 그 소망 아래에서 위로를 얻으며 오늘 하루 다시 일어서 세상을 마주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됩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지금 나에게 찾아온 믿음의 시련은 무엇인가요?
이 시련을 견디기 위해 내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요?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깨어있길 소원합니다. 또한 끝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25장 40절

[개역개정]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새번역]

40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한구절 묵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환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작은 자 한명을 자신과 동일시 한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단순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섬길 때,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환대받은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나는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환대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마르지 않은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 작은 자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은 체포되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메시아의 수난을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유대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26장 12-13절

[개역개정]

-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 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새번역]

- 12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 1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 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행동이 ‘허비’라며 그녀를 비난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였으므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행동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누군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것을 나의 편협한 생각으로 판단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헌신보다 다른 활동에 더 치중한 적은 없는지, 내게 있는 물질과 에너지는 어디를 향해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쉽게 판단하는 모습은 없는지, 또 나는 얼마나 주를 위해 아낌없이 힘과 정성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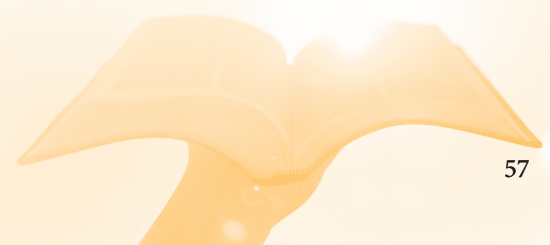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내게 있는 것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겉모습만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긍휼을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군병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과 예수님 곁에 달린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27장 50-51절

[개역개정]

-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새번역]

- 50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한구절 묵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성소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인간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에 하나님이 여신 길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망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두렵게 하며 불안케 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 ② 나를 두렵게 하며 불안케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며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복음 전파 사명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마태복음 28장 19-20절

[개역개정]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새번역]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한구절 묵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명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과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교회이름'에 그치지 않은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가 빠진 이상한 전도를 하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며 감격과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복음 전하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소서.

3/27
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의 본문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1장 28절

[개역개정]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새번역]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지으신 만물을 돌보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세워 집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우리는 만물을 보살피고 다스리도록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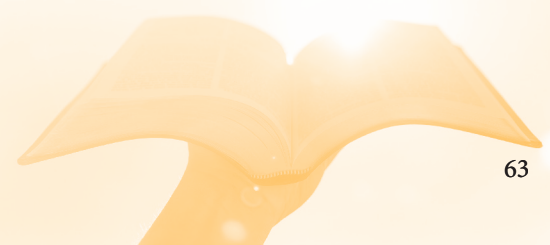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물을 보살피고 다스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3/28
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오늘의 본문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2장 24절

[개역개정]

24 이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새번역]

24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구절 묵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이들이 별거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신뢰를 가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꿔나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온전한 신뢰 가운데 만들어 집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온전한 신뢰의 태도를 생각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친밀함과 신뢰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공활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잡고,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장

사람은 뱀에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를 먹고, 죄를 지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3장 15절

[개역개정]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새번역]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뱀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평생의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약속의 성취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을 벗어나 소망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찬양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우리는 약속의 성취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악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함으로 결단합니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지은 우리에게도 소망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성취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가득한 불순종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4장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의 이야기와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4장 4절

[개역개정]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새번역]

4 아벨은 양 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기셨으나



한 구절 묵상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자, 그 자신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삶과 그 마음의 중심이 오롯이 드러지는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고쳐야 할 나의 예배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5장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이르는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5장 24절

[개역개정]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새번역]

24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에녹은 10명으로 구성된 아담의 계보에서 7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에녹은 담담히 기술되는 족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특별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표현은 그가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교제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당시 수명을 기준으로 볼 때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②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6장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홍수심판을 예고하시지만 동시에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6장 22절

[개역개정]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새번역]

22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한구절 묵상

하나님은 에덴동산 이후 계속 타락해가는 인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를 방관할 수 없기에 홍수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은혜를 베풀어서 홍수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마른 땅에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하나님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7장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안으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종류대로 한 쌍을 이루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비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쏟아졌고,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7장 1절

[개역개정]

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새번역]

1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온 땅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심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창 6:5-7). 그러나 또한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인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가득함을 깨닫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과 연약한 모습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용서해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연약한 죄인이지만 오늘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어진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8장

하나님께서서는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온 지면에 가득했던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된 이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8장 1절

[개역개정]

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새번역]

1 그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짐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의인이었던 노아와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아를 통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뤄 가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영역(나의 직업, 가정, 공동체 등)은 무엇인가요? 내게 맡겨진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노아를 기억하셔서 심판을 거두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시작하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류가 다시 땅에 충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며, 언약의 표징으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9장 14-15절

[개역개정]

¹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¹⁵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새번역]

¹⁴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¹⁵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온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살롬'의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노아와의 '언약'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죄에 물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를 힘입어,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뤄주셨던 약속들을 묵상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대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평생 기쁨으로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10장

하나님께서서는 홍수 이후의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신 뒤, 노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들려줍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10장 32절

[개역개정]

32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새번역]

32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한구절 묵상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으로 멈춰버린 인류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뤄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다시 나의 마음을 뛰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묵상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로 오늘도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11장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만한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흠어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흠으셨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11장 9절

[개역개정]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새번역]

9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흠으셨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온 땅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흠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을 택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런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흠어질 수 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라고 주신 하나된 언어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내 이름이 높여지고 칭찬 받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던 않은지 생각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자존심이나 평판에 관심이 많은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며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개역개정]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새번역]

- 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안정된 자리를 포기하게 하신 것은 그를 고난에 처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복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1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2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봅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면서도, 안정된 삶을 위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 다툼이 일어나자, 다툼을 피해 롯은 동쪽인 소돔으로, 아브람은 서쪽인 가나안에 거주합니다.



[개역개정]

-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새번역]

- 14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15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브람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 롯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큰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소돔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롯이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보여주십니다. 12장 1절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에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새로운 길도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 ②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봅시다.

.....

.....

.....

.....



주님, 영적인 안목을 갖기 원합니다.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거나,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목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14장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중에 잡혀간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아브라함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재물을 바칩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14장 20절

[개역개정]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새번역]

20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한 구절 묵상

조카 롯은 전쟁 중 포로로 잡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출전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합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창세기 14장 16절에서는 ‘롯과 롯의 재산’을 되찾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롯의 면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무엇보다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돈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롯과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습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나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보면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소비생활을 돌아보며 드는 생각을 적어봅시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그렇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말과 삶이 다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상속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람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15장 18절

[개역개정]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새번역]

18 바로 그 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세우다’라는 뜻의 동사 히브리어 ‘카라트’는 ‘자르다,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언약 방식인 동물을 갈라 그 사이로 지나가는 예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동물들을 잡아 그것을 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예식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갈라진 동물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지켜주셨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마음을 한 줄 기도로 적어보세요.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16장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는 깨지고 어그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에 개입하셔서 다시 평화를 이루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16장 11절

[개역개정]

11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새번역]

11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한 구절 묵상

오늘 본문은 사라의 여종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 뿐 아니라 그들의 종인 하갈의 고통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자녀의 고통도 돌보시지 않을까요? 종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자녀의 고통의 문제를 그냥 보고 계실까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최근 들은 고통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분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적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종의 고통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 나의 고통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할 때,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17장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칭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며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가 행해집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17장 5절

[개역개정]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새번역]

5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람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칭하십니다.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옛 자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묵상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꿈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방문에 극진히 환대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개역개정]

⁵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새번역]

⁵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통과해야하는 첫 번째 테스트는 자신을 찾아 온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 온 이름 모를 나그네들을 극진히 환대하고, 정성을 다하여 직접 잡은 송아지로 대접합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환대를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와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환대를 깊이 묵상하고, 내 주변에 환대를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해봅시다.

.....

.....

.....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환대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환대와 호의를 받은 우리가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진 이웃을 하나님의 환대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환대가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시고,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19장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비같이 내리는 유향과 불로 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격렬한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옆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19장 29절

[개역개정]

29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옆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새번역]

29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유향과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주시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은 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변명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20장 17-18절

[개역개정]

-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새번역]

-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 18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자들로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비멜렉과 그 집안에 임한 재앙은 사라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 속이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특별히 선택한 자임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뤄나가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 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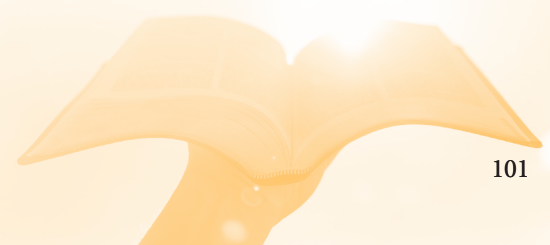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에 너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1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정하신 때가 되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사라는 기쁨의 웃음을 터뜨립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21장 5-6절

[개역개정]

- 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 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새번역]

- 5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백 살이었다.
- 6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한구절 묵상

일 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셨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이제 아들을 낳고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삭의 출생은 노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며,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실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때문에 지금은 비록 웃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결국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 ②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고, 웃을 수 없는 상황들도 결국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의 선포를 적어봅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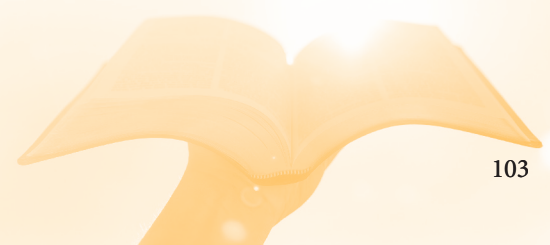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라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결국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기에 웃을 수 없는 상황들도 결국은 웃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하였으며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개역개정]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새번역]

13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14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곳 이름을 여호와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외아들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많은 부분은 믿음의 열쇠로 열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소망합니다.



- ① 오늘 말씀을 읽는 중 내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감동)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 ②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이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주시고,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대하며, 정당한 값을 치러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23장 19-20절

[개역개정]

- 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 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새번역]

- 19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 20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 주었다.



한 구절 묵상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라의 매장지로 삼은 것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약속이 자신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국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수고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생각해봅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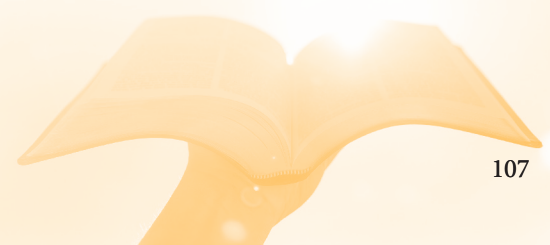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를 기꺼이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자신의 족속 가운데 택하라는 기준을 세웁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24장 3-4절

[개역개정]

3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새번역]

3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4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한 구절 묵상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지켰고, 자신의 족속 중에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때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쉬운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것과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여, 보기 좋고 쉬운 길을 걷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5장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참된 유익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25장 32절

[개역개정]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 하리요

[새번역]

32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한 구절 묵상

나의 갈급한 필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에서는 팔죽을 얻기 위해 장자의 명분이 주는 유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채울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삶속에서 주어지는 당장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유익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구별하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참된 유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영적 안목을 어둡게 하는 나의 욕심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이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참된 유익을 구별하는 안목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6장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지역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툼을 걸며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합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26장 22절

[개역개정]

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새번역]

22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르호봇: 장소가 넓음



한구절 묵상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저마다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삭 역시, 그랄 지역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마찰과 다툼이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앞에서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이익이 아닌, 르호봇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동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르호봇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 마주하는 문제 앞에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최근 내가 마주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았는지 생각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르호봇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7장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챍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하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도망가게 합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27장 1, 4절

[개역개정]

- 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만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이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 4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새번역]

- 1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만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이야."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 4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한 구절 묵상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어두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력이 쇠하여져 육체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영적인 시야가 흐려졌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 중 하나로, 에서를 향한 편애(창 25:28)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 25:23)”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은 이 말씀을 잊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도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나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보세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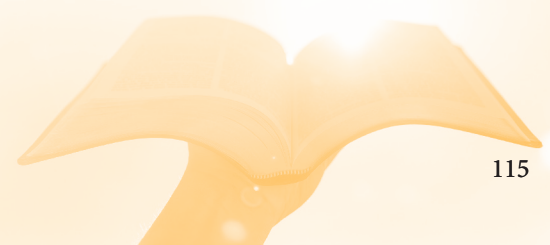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날마다 나의 영적인 시야를 점검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것으로 부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8장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28장 15-16절

[개역개정]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새번역]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한 구절 묵상

종종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두려움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 역시 하나님은 언제나 나 야곱과 함께하셨지만, 두려움이 너무도 큰 나머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주시고, 야곱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두려움 앞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최근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순간에도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발견해 봅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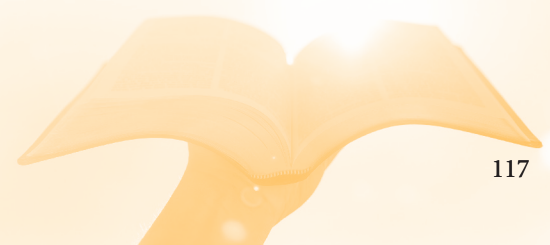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크고 작은 수많은 두려움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이 너무도 크게 보이는 나머지,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9장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14년 동안 일한 대가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29장 20절

[개역개정]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새번역]

20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칠 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칠 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한 구절 묵상

오늘 말씀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칠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칠 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사랑의 대상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옮겨지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0장

아굽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운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만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요셉을 허락해줍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30장 22-23절

[개역개정]

- 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 2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새번역]

- 22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 23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한 구절 묵상

라헬은 합환채를 통해 출산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계속해서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된 실패 후 라헬은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앞날의 일들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해결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 ②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나의 생각과 경험과 힘의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1장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31장 3절

[개역개정]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하고

[새번역]

3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한 구절 묵상

야곱이 부유해지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라반의 곁이 아니라, 약속의 땅 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인지 돌아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봅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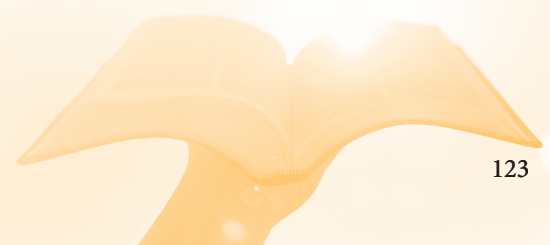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2장

야곱은 라반의 품을 떠나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벧엘로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32장 1-2절

[개역개정]

- 1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 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새번역]

- 1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 2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 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 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한 구절 묵상

야곱에게는 에서를 만나는 것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두려움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 ② 두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두려운 상황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3장

야곱과 에서는 재회하고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의 땅을 매입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33장 20절

[개역개정]

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새번역]

20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한 구절 묵상

‘엘엘로헤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극적인 화해를 경험한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순간을 감사하며 예배하였고, 기념하며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 후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으며 표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4장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행하게 한 뒤 잔인한 복수를 합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34장 30절

[개역개정]

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새번역]

30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 구절 묵상

야곱이 하나님을 기념했던 세겜이 죄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는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당한 끔찍한 일로 시작된 죄는 속임수와 살육을 더하며 더욱 악취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동반한 분노는 야곱과 그의 아들이 서로를 비난하게 하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죄는 언제나 문 앞에 기다리며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죄로 인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죄는 분노를, 분노는 죄를 가져옵니다. 내가 절대로 참지 못하는 분노의 말이 무엇인지 묵상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죄로 인한 악취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분노의 구렁텅이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5장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다시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한구절

창세기 35장 3절

[개역개정]

3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새번역]

3 이제 우리는 이 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한 구절 묵상

가나안 고생길 후에 야곱은 가나안의 모든 신상과 물건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간구를 들어주셨으며, 함께 다니며 보살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과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지난 시간을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더 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봅시다.

.....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언제나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